

러시아 니힐리스트 영웅의 중국적 수용

- 1920년대를 중심으로 -

김 소 정*

<目次>

I. 들어가며	IV. 아르치바세프의 《사년》
II. 아르치바세프의 《노동자 세비료프》 수용	수용
III. 룩신의 《회색 말》 수용	V. 결론을 대신하며: 1930년대의 수용

I. 들어가며

5.4시기(1917~1927년)는 중국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번역문학사에서도 근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다. 근대적 번역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5.4 시기에 외국문학의 번역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특히 어떤 작품을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5.4 문단의 번역가들은 지난 20여 년간의 번역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유럽의 통속적인 소설 위주의 번역이었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했다.¹⁾ 5.4운동 무렵 애국심이 한층 고조되면서 번역가들은 중국문화의 신속한 재건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자 외국의 우수한 문학을 번역 소개했다. 1920년대 초기 외국문학의 번역 문제에 관해 여러 편의 글을 쓰면서 약소국가의 문학을 많이 번역했던 선옌빙(沈雁冰: 1896~1981)은 “서양의 신문학 걸작 가운데 중국어로 번역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린수(林紓)의 번역소설에 대한 5.4 지식인들의 비판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된 것은 몇 퍼센트도 안 된다”고 개탄했다.²⁾ 선옌빙과 함께 문학연구회 발기인이었던 정전두어(鄭振鐸: 1898~1958) 역시 <맹목적인 번역가>³⁾에서 지금 번역가들은 눈을 크게 뜨고 원작을 들여다보고 또 현재의 중국도 똑바로 살펴본 이후에 번역에 착수해야 하며, 중국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학을 우선적으로 번역할 것을 요청했다. 5.4 운동의 번역가들은 새로운 행동을 가져올 원천은 바로 새로운 사상에 있다고 생각하여 사상의 힘에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그들이 전통의 구속에서 벗어나 신문화를 건설하는데 외국문학의 번역은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중국의 5.4 지식인들은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와 제국주의 침탈을 목도하면서 유럽문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근대화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 때 그들은 자신들과 거의 동시에 혁명의 길을 걷고 있는 러시아에 각별한 친연성을 느꼈고 볼셰비키가 이끈 10월 혁명을 배워야 할 모범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절대 군주 짜르 체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러시아 민중이 혁명의 위업을 달성한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혁명을 성공시킨 원동력으로 러시아 문학에 주목했다.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운명에 대한 우려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문학의 임무라고 여겨지지 않던 그 당시, 러시아에서만은 문학이 다루어야 할 당연한 범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1920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번역 열기가 맹렬히 타올랐다. 정전두어는 중국인의 영혼을 마비시킨 구문학(舊文學)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있어 러시아 문학은 이상적인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문학은 진실한 문학으로, 진실함을 뼈대로 삼아서 감정과 직감을 표현하고 사회상황을 꿰뚫히게 묘사했다. 러시아 문학의 정신은 조탁이나 격률에 구속되지 않고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감응을 불러일으켜 혁명정서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⁴⁾ 1920년으로 접어든 상황은 5.4운동이 퇴조

2) “西洋新文學傑作, 譯成華文的, 不到百分之幾”. 雁冰, <對於系統的經濟的介紹西洋文學底意見>, 《時事新報·學燈》, 1920.2.

3) 鄭振鐸, <盲目的翻譯家>, 《文學旬刊》 第6號, 1921.6.

4) 鄭振鐸, <《俄羅斯名家短篇小說集》序>(1920년 3월 씀), 嚴家炎 編, 《二十

함과 동시에 지식인 내부에서 이데올로기적 분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혁명의 열정이 수그러들었다. 청년지식인들은 점차 연애나 가정문제로 관심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진두어는 청년들에게 구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데 러시아 문학은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했다. 당시 신문학 진영의 지도자였던 저우쭈어런(周作人: 1885~1967) 역시 러시아 문학은 삶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현실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⁵⁾ 문학연구회 멤버였던 왕통자오(王統照: 1897~1957) 역시 근대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러시아 소설인데, 톨스토이, 푸르케네프, 도스토예프스키, 안드레예프의 작품, 그리고 롭신의 《회색 말》, 아르치바세프의 《사년》과 《노동자 세비료프》 등은 태도의 엄중함과 감동의 깊이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소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러시아 문학에는 고통스럽고 참담한 정신과 격정적으로 고무하는 정신이 배어있으며, 반항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데 밝게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았다. 러시아인들이 문학에서 위대한 영향을 받았듯이 현재 중국사회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⁶⁾

이런 인식 아래 1920년 이래로 러시아 문학의 번역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특히 1925년 5.30사건과 1927년 4.12 쿠데타의 여파로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산되자 러시아 및 소련 문학은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여 베스트셀러를 석권할 정도였다. 본고는 이 시기에 번역된 러시아 문학 가운데 20세기 초기 니힐리스트 영웅을 묘사한 3개의 작품 -롭신의 《회색 말》, 아르치바세프의 《노동자 세비료프》와 《사년》-을 대상으로, 중국적 번역 맥락과 중국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초기 과정에서 러시아 니힐리스트 영웅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 1917~1927》(第二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93쪽.

5) 周作人, <文學上的俄國與中國>, 《新青年》 第8卷5號, 1921.1, 1-7쪽.

6) 王統照, <文藝雜評三則>, 《王統照文集》 第6卷,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4, 417-418쪽.

여기서 별도로 언급해둘 문제는 번역의 저본 문제인데, 1920년대 급증한 러시아 및 소련 문학의 번역은 러시아어 원전을 직접 번역하기보다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에 의존하는 간접번역이 훨씬 일반적이었다. 그 당시 우수한 러시아어 능력을 갖춘 번역가가 부족했고, 번역의 가장 기본 공구서인 『러중사전』이 없었기 때문에⁷⁾ 러시아문학의 번역은 영역본 혹은 독역본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3개 작품 역시 간접번역을 통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적 수용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원작의 출판연대 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중국에 번역된 연대순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II. 아르치바세프의 《노동자 세비료프》 수용

19세기 러시아 대문호들에 비해 아르치바세프(Mikhail Petrovich Artsybashev: 1878~1927)는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지만, 1901년부터 소설 창작을 시작한 이래 1907년에 발표한 《사년》으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았던 작가이다. 《사년》은 1905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대중적 인기를 크게 거둔 작품이었지만, 주인공 사년이 보여준 성적 자유와 허무주의적 태도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보수진영과 혁명진영 양측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았다. 《사년》출판 직후 고리끼(Maxim Gorky)와 막시스트 비평가 보로브스키(Vaclav Vorovskii)는 《사년》의 니힐리즘을 혹평했고, 그 이후 볼셰비키가 장악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그의 소설을 금서로 정했고 급기야 1923년에는 그를 추방했다. 《사년》이 청년학생들에게 미친 폐단이 심각했고 작가가 볼셰비키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연유로 아르치바세프는 러시아에서 출판된 공식적인 문학사에서는

7) 그 당시 러시아 원전을 번역할 때 중국 번역자들은 일본의 러시아언어학의 선구자 야수지 사다토시(八杉貞利; 1876~1966)가 편찬한 《러일사전(露和辭典)》 또는 《러시아어사전(俄語字典)》을 참고로 했다고 한다.

체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설령 언급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부정적인 관점을 취해왔다.⁸⁾ 이리하여 아르치바세프는 자신의 조국 러시아에서는 혜성처럼 반짝 떠올랐다가 이내 잊혀진 작가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놀랍게도 국경을 넘은 중국에서는 위대한 러시아 리얼리즘 작가로서의 명예를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작품을 번역했던 번역가 루쉰(魯迅: 1881~1936)과 정전두어의 명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20년부터 1936년 간 번역된 아르치바세프의 작품은 총 14종으로, 17명의 번역가⁹⁾에 의해 모두 22종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이는 동일한 작품에 대한 2종 이상의 번역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의 번역문학은 대개의 경우 잡지에 먼저 연재되고 나서 나중에 단행본이 출간되는 방식으로 독자와 만났다. 아르치바세프의 작품 대부분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중국에 알려졌다. 14종의 작품 가운데서 아나키적 니힐리스트를 묘사한 《노동자 세비료프(工人緩惠略夫)》와 에로틱 니힐리즘을 대표하는 《사닌(沙寧)》은 중국의 혁명 지식인들을 열광시켰으며 일반 독자에게도 강한 인상을 주었다.

1920년과 1921년 루쉰이 번역한 《행복(幸福)》¹⁰⁾, 《의사(醫生)》¹¹⁾, 《노동자 세비료프》 덕분에 중국에서 아르치바세프는 깊이 있는 표현이 극치에 달한 러시아 신흥문학의 대표 작가로 소개되었다.¹²⁾ 《행복》에

8) 일례로 러시아의 비평가이자 문학사가였던 드미뜨리 미르스끼(1890~1939?)는 1926년 출판한 자신의 유명한 《러시아 문학사》에서 아르치바세프의 《사닌》에 관해, “《사닌》의 저자는 러시아 사회, 특히 지방 여학생들의 도덕적 타락에 이바지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혹평하면서 그 퇴폐성을 지적했다. R.H. 스타시 지음, 이항재 옮김, 《러시아문학비평사》, 서울: 한길사, 1987, 253쪽.

9) 이 가운데 4종을 번역한 루쉰과 3종을 번역한 정전두어가 주요 번역가였다. Mark Gamsa, *The Chinese Translation of Russian Literature: Three Studies*, Leiden:Boston: Brill, 2008, 384-385쪽 참조.

10) 1920년 12월 1일 《신청년(新青年)》 제8권 4호 등재.

11) 1921년 9월 《소설월보》 제12권 호외(號外) 《러시아문학연구(俄國文學研究)》 등재.

12) 루쉰이 번역한 아르치바세프의 《행복》과 《의사》는 잡지에 실린 후, 1922년 《현대소설역총(現代小說譯叢)》(루쉰, 저우쭈어런(周作人), 저우지엔런(周

단 번역가의 글에서 루쉰은 아르치바세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아르치바세프는 비록 톨스토이와 고리끼만큼 위대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신흥 문학의 전형적인 대표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작은 자연히 사실과에 속하지만, 표현의 깊이에 있어 그에 이르러 극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란테의 죽음》이라는 소설 때문이지만 그가 더욱 유명해지고 여러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사년》 때문이다. 아르치바세프의 저작은 염세적이고 자아 중심적이다. 게다가 작품 마다 성욕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그는 사실대로 묘사해낼 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비록 주관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주장하거나 선동하지 않는다. 그의 작풍(作風)은 ... 오로지 시대의 초상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는 현대생활을 묘사한 작가라는 것이다.”¹³⁾ 이처럼 인간의 삶을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아르치바세프의 위상은 루쉰의 명성에 의지하여 확보되었다.¹⁴⁾

아르치바세프가 1905년 발표한 《노동자 세비료프》는 1921년 상하이 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예잡지 《소설월보》 제12권 7~9호, 11~12호에 총 5회에 걸쳐 번역 연재되었고,¹⁵⁾ 이듬해 1922년 5월 상무인서관에서 ‘문학연구회총서’ 타이틀을 달고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이후 1927년 6월 ‘미명총간(未名叢刊)’ 타이틀을 달고 북신서국(北新書局)에서 2쇄를 찍었다. 북신서국에서 출간한 《노동자 세비료프》의 책 표지 디자인은 1924

建人) 번역, 상무인서관)에 수록되었다.

- 13) <《幸福》譯者附記>, 《魯迅譯文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8, 368-369쪽.
- 14) 루쉰의 번역 외에 다른 번역가가 번역한 아르치바세프의 작품으로는, 후위즈(胡愈之)가 번역한 《혁명당(革命黨)》(1920.11월 《東方雜誌》 제17권 21호 게재), 정진두어가 번역한 《혈흔(血痕)》과 《과샤 투마노프(巴莎杜麥諾夫)》, 선저민(沈澤民)이 번역한 《아침 그림자(朝影)》과 《니나(寧娜)》 등이 더 있었고, 이 작품들은 모두 1927년 상하이 개명(開明)서점에서 출간한 아르치바세프 소설모음집 《혈흔(血痕)》에 수록되었다.
- 15) 제12권 10호는 ‘피억압민족 문학호’로 특별 기획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세비료프》의 연재를 쉬었다.

년 이래로 루쉰의 저역서의 표지 그림 대부분을 그린 타오위안칭(陶元慶: 1893~1929)¹⁶⁾이 그린 것으로, 창과 검을 통해 혁명기에 발생한 폭력성, 피의 희생, 민중들의 정신적 혼란 등을 이미지화했다. 루쉰에게 있어, 책 표지는 문자언어가 미처 표현해낼 수 없는 부분을 이미지로 전달해냄으로써 그것의 부족을 메우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책표지는 남다른 중요성을 띤다. 루쉰의 번역저본은 러시아 원전이 아닌 버고(S. Bugow)와 빌라드(André Villard)가 함께 독일어로 번역한 《혁명의 이야기(Revolutionsgeschichte)》¹⁷⁾로, 이 책은 《노동자 세비료프》, 《혈흔》, 《아침 그림자》, 《과샤 투마로브》, 《의사》 등 아르치바세프의 작품 5편이 수록된 모음집이었다. 루쉰은 이 책의 입수 경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다. 독역(獨譯)본 《혁명의 이야기》는 본래 상하이의 독일상인클럽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중국이 패전국 독일로부터 독일상인클럽을 전리품으로 차지함에 따라 이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중국정부에 귀속되었다. 루쉰은 교육부 첩사로 일하던 시절, 베이징(北京)으로 운반되어온 이 도서관의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고,¹⁸⁾ 이 책에서 2편을 번역했다. 루쉰이 왜 하필 이 책을 집어 들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루쉰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혁명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끄는 제목과 당시 독일 굴지의 출판사 게오르그 뮐러(Georg Muller)



16) 저지양성(浙江省) 샤오싱(紹興) 출신으로 루쉰과 동향이었으며, 서양화에 중국의 정취와 기법을 녹여낸 근대화가로 유명하다. 1924년 루쉰과 알게 된 이후 그의 책 표지 디자인을 도맡았다.

17) *Revolutionsgeschichte*, Muenchen: G. Mueller, 1909.

18) 培良, <華蓋集續編記談話>, 《魯迅全集》第3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340쪽.

가 디자인한 매력적인 책표지 디자인은 그의 선택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¹⁹⁾ 또 다른 가능성은 루쉰이 일역본을 통해 이미 《노동자 세비료프》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수록된 모음집을 의도적으로 집어 들었을 수도 있다. 1914년 일본에서는 나카지마 키요시(中島清)가 독일어 번역본에 의거해서 《勞働者セブリオフ》라는 제목으로 금앵당서점(金櫻堂書店)에서 출판된 적이 있었다.

사실 《노동자 세비료프》는 20세기 초기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물론 아르치바세프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대표성을 갖는 작품이 아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쉰이 왜 이 책을 번역했는가에 관해서는 1926년 8월 22일 베이징여자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루쉰이 보기에 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중국과 매우 유사했는데, 주인공 세비료프는 중국의 개혁가가 처한 곤경과 매우 닮아 있었으며 안분수기의 이름으로 굴종을 강요하는 노파는 중국 문인학사의 비굴한 행동과 매우 닮아 있었다.²¹⁾ 중국의 개혁가와 인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처한 곤경은 바로 그해 3.18사건으로 사망한 학생과 민중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루쉰은 이 소설이 대중에게 혁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범적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임무를 맡은 개혁가들이 처한 곤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세비료프는 혁명이 실패한 뒤에 살아남은 패배한 혁명가로서, 당국으로부터 추격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무익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니힐리스트 세비료프는 톨스토이식 무저항주의자 알라체프의 인생관을 거침없이 비난한다. 박애, 인내, 자기희생만이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미래의 황금시대를 꿈꾸는 자들은 몽상가일 뿐이며, 그들의 주장은 결국 인간의 현재의 필요와 욕망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비판한다. 진리는 바로 인간의 일체 욕망은 모두 맹수의 본능에 다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19) Mark Gamsa, 앞의 책, 157쪽.

20) 일반적으로 아르치바세프의 대표작은 《사년》 또는 《란테의 죽음》을 꼽는다.

21) 培良, 앞의 글, 342쪽.

촉구한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기존의 도덕 시스템, 동정과 박애를 주장하는 인간들에 대한 농밀한 역겨움과 강한 복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억압받는 일반 민중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 왜냐하면 일반 민중들은 자신들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혁명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존재였으며, 기득권층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비료프는 경찰에게 뒤쫓기며 도망치다가 결국 극장에 들어가 일반 대중 즉 행복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에 대한 무차별 난사를 가했다. 그는 기존의 권위적 질서에 기대 살고 있는 기득권층과 어리석은 민중들이 모두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세비료프는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기존의 관습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믿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보편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다. 따라서 이 작품의 결말은 비극적인 분위기로 만연한 것이 아니라 세비료프가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시하면서 끝난다. 밝은 미래의 도래를 낙관적으로 예감하는 이러한 희망적 결말은 《사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루쉰은 비록 세비료프가 사회에 복수하는 결말에서 섬뜩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고독한 전사의 이미지에 매료당했던 것 같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대중이 폭력적인 강권에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 가야 했던 한 혁명가의 고통을 묘사한 책으로 독해했던 것이다.

번역 방식에 있어 루쉰은 독일어 번역본을 임의로 증감하거나 개작하지 않고 충실하게 번역하는 기초 속에서 독일어 번역본에 첨가된 모든 주석까지도 남김없이 번역해냈다. 또 정확성을 높이고자 독일베를린대학에서 유학했던 친구 지종이(齊宗頤: 1881~1965)의 도움도 구했다. 루쉰이 축자역(逐字譯)을 고집했던 탓에 쉽게 읽혀 내려가지 않는 어색하고 거북한 번역투의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그가 유럽적인 문장구조를 적극 채택한 것은 그것이 중국문장이 갖고 있는 결함 즉 표현의 불명확함, 사고의 비논리성

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921년 《소설월보》에 처음 발표된 《노동자 세비료프》는 즉각적으로 독자들의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일부의 지식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소설월보》에 실린 독자 천저권(陳哲君)이 《노동자 세비료프》를 읽고 난 감상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작년 귀 월보사에서 연재한 장편소설 《노동자 세비료프》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원저자의 사상입니다. 저자 아르치바세프는 혁명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톨스토이 무저항주의를 주장하는 알라체프를 묘사했고, 또 혁명적이고 저항적이며 복수적인 세비료프를 묘사해냈습니다. 그러나 알라체프는 세비료프에 비하면 못합니다. 겁이 많고 결단력이 없으며 용기도 없습니다. ... 그(알라체프-필자 주)의 신앙, 혁명론은 간접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고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취가 아니라 ‘눈감아 주는 것(縱容)’이겠지요! ... 인류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혈의 홍수를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 아르치바세프의 믿음입니다. 중국 청년들이여! 당신들은 사회문제, 인류미래의 문제에 대해 엄밀하게 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눈을 부릅뜨고 현실세계를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사상은 충돌하지 않습니까? 문건데, 당신들은 《노동자 세비료프》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중국 청년들이여! 만일 당신이 사회개조의 문제에 대해, 현실생활에 대해, 그리고 당대의 각종 사상에 대해 상당한 접촉을 해왔다면 당신들의 혈관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을 것이며 당신들의 뇌는 감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당신들은 《노동자 세비료프》를 읽고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묵묵히 책을 내려놓고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 책에서 말한 문제는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 일종의 태도를 취할 것을 강요합니다! ... 청년들이여! 청년들이여! 당신들의 열정을 끌어올리십시오! 이 《노동자 세비료프》를 교과서로 삼으십시오!”²²⁾

22) “去年貴月報上登的一篇長篇小說《工人綏惠略夫》，我非常喜歡讀他；我喜歡的是那位原著者的思想。這位著者的思想。這位著者阿爾志跋綏夫是個主張革命的人。他描寫一個主張托爾斯泰無抵抗主義的亞拉藉夫，又描寫一個主張革命的抵抗的報仇的綏惠略夫。然而，亞拉藉夫比起綏惠略夫來，究竟遜色些：比較的是膽怯些，少決斷些，不勇往些。... 他的信仰，他的非革命論，不是成了間接地鼓吹人

이상의 인용문에서 봤을 때 천저권은 문학이 민중의 혁명 열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5.4 리얼리즘 작가들의 생각을 공유한 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리얼리즘 문학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선옌빙은 인생을 반영하고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는 문학을 제창했다. 《노동자 세비료프》가 연재되고 있던 무렵 1921년 7월 《소설월보》에 실은 <창작의 전망(創作的前途)>에서 선옌빙은 당시 중국 청년들의 심리적 경향을 ‘염세’와 ‘향락’으로 규정지었다. 구세력의 억압, 사회 전반에 걸친 나태함 등으로 인해 미래를 비판하면서 고민에 빠진 청년들은 장차 향락에 탐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왜냐하면 현재 자유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쾌락을 획득하는 제일의(第一義)로 자유를 외칠 뿐 뿐 인격의 독립이라는 문제와 연관시키는 자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그는 청년들의 활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쾌락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청년들의 번민, 번민 이후의 추세, 이러한 추세에 대한 징조 등 현재의 중대한 문제를 표현해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 좌절을 당하고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더욱 결연하게 하고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눈앞의 성과를 도모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정신으로 암흑과 분투하는 것을 묘사하는 소설이 반드시 필요로 했다. 이러한 리얼리즘 작품은 진실로 암흑 가운데 한줄기 광명이며 1920년대 초기 중국이 갈망하는 것이었다.²³⁾ 《노동자 세비료프》는 바로 이러한 갈망을 메우는 위대한 리얼리

吃人’麼? 不是鼓吹, 也當是縱容呵! ... 人類走到這將來, 是應該經過是應該經過多少鮮血的洪流呢, 這是綏惠略夫的信仰! 中國青年呀! 你們曾經對於社會問題, 人類將來問題, 下過嚴密的思慮麼? 你們曾經睜開眼來看過現實的世界麼? 你們思想不衝突嗎? 請問你們看了《工人綏惠略夫》有了什麼感觸? 中國的青年呀! 如果你們曾經對於社會改造問題, 對於現實生活, 對於當代各種思想都曾有過相當的接觸, 而你們的血管裏還是有熱血的, 你們的腦筋還是能起感覺的, 那麼, 你能不能看了《工人綏惠略夫》而不跳起來? 能不能漠漠然把書放下就撂開了呢? 能不能, 這部書裏講到的問題, 逼著你對於人生取一種態度呢! ... 青年! 青年! 提起你們的熱情來! 把這本《工人綏惠略夫》當作教科書罷!” <通信>, 《小說月報》第13卷15號, 1922.12, 2-3쪽.

즘 작품으로 수용됨으로써 중국 혁명의 순간에 흡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III. 롱신의 《회색 말》 수용

작가 보리스 사빈코프(Boris Viktorovich Savinkov: 1879~1925)는 1903~1905년 동안 사회혁명당 아래의 러시아 정부요인 암살단 BO(Boevaia Organizatsiia, ‘전투조직’의 뜻)의 테러리스트로 활동하면서 1905년에 모스크바 통치자였던 세르게이 알렉산드르비치 대공 암살을 주도했던 독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이듬해 1906년 암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탈옥에 성공하여 파리로 도망가 거기서 작가 메레슈콥스끼(Dmitry Merezhkovsky: 1866~1941)를 만나 소설 창작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망명지에서 《창백한 말》과 함께 《어느 테러리스트의 회상》, 《없었던 일》 등 자신의 대표작을 창작했다.

1909년 필명 롱신(V. Ropshin)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창백한 말》은 1922년 정전두어의 번역을 통해 《소설월보》 제13권 7-8호, 10-12호에 ‘회색 말(灰色馬)’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앞서 언급한 《노동자 세비료프》가 연재된 지 꼭 1년 뒤였고, 그때 번역가 정전두어의 나이 25세였다. 이후 1924년 1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문학연구회총서’ 타이틀을 달고 단행본으로 초판이 나온 이래, 같은 해 7월에 2쇄, 1931년 8월에 3쇄가 출간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저지양(浙江)성에서 태어난 정전두어는 1917년 베이징철로관리학교(北京鐵路管理學校)로 진학함에 따라 베이징의 숙부 집으로 옮겨와 기숙했다. 1921년 졸업할 때 까지 그는 학교 강의 외의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베이징에 있던 YMCA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보았다. 여기서 그는 다양한 외국서적을 접할 수 있었는데, 벤게로바(Zinaida Vengerova: 1867~1941)가 번역한 영역본 The Pale Horse

23) <創作的前途>, 《茅盾全集》第18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120-121쪽.

(1917년)는 아마도 이 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벤게로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문학비평가와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러시아와 서유럽 모더니스트 문학계와 예술계를 잇는 가교 역할로 유명했다. 벤게로바가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데에는 아마도 개인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벤게로바와 절친한 사이였던 상징주의 시인 기삐우스(Zinaida Gippius: 1869~1945)와 그의 남편 메레슈콥스키는 문단에서 사빈꼬프의 후원자였다. 러시아 상징주의 문학을 주도한 핵심 인물 메레슈콥스키는 자신의 문학적 명성에 의지하여 세르게이 알렉산드르비치 대공 암살 사건을 직접 다루었다는 이유로 엄격한 검열의 벽에 부딪혀 출판되지 못하고 있던 《창백한 말》을 1909년 1월 모스크바의 《루스까야 미슬(Ruisskaia Mysl’: ‘러시아 사상’의 뜻)》에 실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 때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모스크바, 페트로그라드의 도시 이름을 N.과 X. 등 로마자로 표기했고 총독의 신분도 명시하지 않았다. 잡지에 연재되고 나서 몇 달 후 《창백한 말》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포브니크(Shipovnik)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러시아어로 된 무삭제 원본은 이후 1913년에 가서야 러시아에서가 아닌 프랑스에서 출판될 수 있었다. 벤게로바는 1913년 출판된 무삭제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9년 검열을 거친 초판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했다. 아마도 정치적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대체로, 벤게로바의 번역은 원작을 대폭 증감하거나 개작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기는 했지만, 그 한계도 뚜렷했다. 일례로 등장인물이 가진 개성적인 말투를 몰개성화해서 번역했으며, 영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주도 거의 달지 않았다.²⁵⁾

24) 벤게로바가 립신의 《창백한 말》을 번역하기 훨씬 이전 1909년 아나톨 프랑스의 《펭귄의 섬(L'Île des pingouins)》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몰수당한 경험도 여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 이 결과 러시아 지방색을 갖는 고유명사 잡지명에 대해 별도의 각주 없이 일반명사로 번역하고 말았다. 사회혁명당의 기관지 《혁명신문》을 일반명사 ‘The News’로 바꾸어 놓았다.

정전두어는 1922년 이 작품을 《소설월보》에 번역 연재할 때 번역자의 서문을 함께 실었다. 정전두어의 서문은 3종의 외국 문헌 -영문 번역가 벤게로바가 쓴 서문, 마사릭(T. G. Masaryk)²⁶⁾의 《러시아의 정신(The Spirit of Russia: Studies in History, Literature and Philosophy)》, 그리고 올긴(Moissaye J. Olgin)의 《러시아 문학 입문(A Guide to Russian Literature(1820~1917))》-을 참고한 것이었다. 올긴의 “러시아 혁명운동의 학생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글귀는 정전두어가 이 책을 선택하는데 큰 인상을 주었던 듯 그의 서문에 그대로 옮겨졌다. 정전두어의 서문은 2개의 제사(題詞)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제사 “이 책은 단지 문학에 불과하지 않다. 이 책은 인생의 비극으로, 그것을 묘사한 사람이 이 책의 사건을 모두 직접 경험했다”²⁷⁾는 벤게로바의 서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번역과정에서 약간의 의미 변화가 발생했다. 벤게로바의 서문에서 이 문장의 맥락적 의미는 이 작품은 단순한 문학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품에서 다루는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에 의해 ‘해석된’ 인생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정전두어는 ‘해석되어진(by interpreted)’을 생략함으로써 이 작품이 실제 있었던 일을 마치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전달했다. 따라서 작가라는 매개자에 의해 해석되어졌다는 의미는 상실되고 말았다. 5.4시기 리얼리즘을 주창한 문학연구회 멤버들은 문학을 삶, 인생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에 허구적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의 실제 경험을 묘사한 작품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의미변화로 보인다.²⁸⁾

26) 토마쉬 게리크 마사릭(Tomas Garigue Masaryk: 1850~1937)은 1차세계대전 전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을 주도한 영웅이자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이다.

27) “這書不僅僅是‘文學’—這是人生的悲劇，寫他的人，對於其中的事跡，一件件都是親身經歷過來的。”鄭振鐸，〈灰色馬譯者引言〉，《小說月報》第13卷7號，1922. 7, 1쪽.

28) 5.4 신문학 담론에서 인생과 문학의 동일시는 Kirk A. Denton ed., *Modern Chinese Literary Thought: Writings on Literature, 1893~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40-41쪽 참조.

두 번째 제사 “이 책은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러시아 책이다”²⁹⁾는 러시아 작가 메레쉬코브스키(Dmitri Mereshkovsky)가 한 말로 역시 벤게로바의 서문에서 인용했는데, 마찬가지로 본래의 맥락적 의미는 무시되고 필독서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문구로 활용되고 말았다. 메레쉬코브스키의 말에 따르면, 이 소설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폭력적 정치 행동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강한 종교적 반감 사이에서 고뇌하던 러시아 개인들의 양심의 비극을 묘사했기 때문이었다. 테러가 필요했던 시대적 특수성 그리고 테러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의문으로 1900년대 초기의 러시아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창백한 말》은 바로 이러한 시대 정신을 체현한 작품이라는 메레쉬코브스키의 관점은 정전두어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전두어는 이 작품을 시대정신이 아닌 특정 집단에 속한 일부 테러리스트의 정신을 반영한 작품으로 수용했다. 그는 테러리스트 당에 속한 일부 테러리스트의 심적 변화를 적나라하게 표현해낸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사회혁명당 내부의 소수의 테러리스트의 심적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전두어는 서문에서 주인공 조지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던 혁명동지들 바냐, 하인리히, 페도르, 에르나 등과 대조시켰다.

주인공 조지에 대해 “조지는 실제로 행동하는 혁명가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혁명가였다. 그는 극단적인 반동자였다.”³⁰⁾라고 정전두어는 소개하면서 마사릭의 책에 의지하여 극단적인 중요성과 모든 것을 희의하는 조지의 사상적 근원은 니체의 초인사상에서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마사릭은 주장하길, 조지의 허무주의는 니체, 괴테, 도스도예프스키에서 기원했으며 이것은 바로 근대인의 특징이다.³¹⁾ 정전두어는 그의

29) “這是這時代中一部最好的俄國書.” 鄭振鐸, 앞의 글, 1쪽.

30) “佐治不惟是一個實行的革命者, 而且思想上的革命者. 他是一個極端反動者.” 같은 글, 2쪽.

31) T. G. Masaryk, trans. by Eden and Cedar Paul, *The Spirit of Russia: Studies in History, Literature and Philosophy*, Volume Two,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19, 457쪽.

관점을 흡수하여 “근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회의와 권태로 충만해 있으며 조지식의 냉혹함과 일체를 무시하는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은 근대의 문제이다. ... 이 점에서 《회색 말》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년》과 마찬가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³²⁾ 정전두어는 마사리의 견해에 의지해 조지의 허무주의를 근대인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로 규정했고 이로써 이 작품은 중국인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정전두어가 봤을 때 과도기에 처한 당시의 중국에는 조지와 같은 청년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 비록 중국 청년들이 실제로 반동자이거나 혹은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사상 방면에서 그들은 확실히 조지와 같은 허무 사상—회의, 불안, 일체를 무시함—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의 번역소개는 아마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³³⁾ 번역가는 허무주의자이면서도 테러에의 굳은 의지를 실천한 조지를 중국 젊은이들의 낙담한 심리 상태와 대조시키면서, 중국 젊은이들이 회의에 빠져 행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 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인생을 위한 문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학연구회 측의 정전두어는 서양 제국주의 침탈로 동포가 총살당하고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난무하는 현재의 중국 상황에서 필요한 문학은 현실 문제를 등한시하고 고상함을 추구하고 자아의 감상을 늘어놓는 문학이 아니라 ‘피와 눈물의 문학’이라고 강조했다.³⁴⁾ 피를 토하듯 혁명의 열정을 쏟아내는 문학, 그리고 평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진솔하게 반영한 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혁명은 이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 조지 형상은 혁명 열정을 진작시키는데 유용

32) “近代的人也至少有一部分是充滿了這懷疑與厭倦，帶了佐治式的冷酷與忽視一切的色彩的。所以這實是近代的問題，... 在這個地方，《灰色馬》便有了普遍的價值了，便與《沙寧》同樣的有研究的必要了。” 鄭振鐸， 앞의 글， 3쪽.

33) 같은 글， 5쪽.

34) 鄭振鐸， <血與淚的文學>，《文學旬刊》第6期，1921.6. 《鄭振鐸全集》第3卷， 石家莊：花山文藝出版社，1998， 490-491쪽 참조.

한 수단으로 수용되었다. 《회색 말》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찬 벤게로바 서문의 영향인 듯, 정전두어는 주인공 조지의 회의적 태도와 작품 전체에 흐르는 염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회색 말》을 희망적 제안을 담은 책으로 수용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되는 강한 존재로서의 조지에 매료되었으며,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테러의 목적으로부터 흩어지게 하지 못할 만큼 결연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의 이상적 모델로 받아들였다.

《회색말》은 1922년 《소설월보》에 연재된 후 1924년 1월에 가서 상무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단행본 《회색 말》에는 정전두어의 서문 외에 상하이대학³⁵⁾ 교수로 있던 취치우바이(瞿秋白: 1899~1935)와 선엔빙의 서문 2편 더해짐으로써 무게감이 훨씬 더해졌다.

취치우바이의 서문이 제일 앞에 실렸는데, 본래 이 글은 <회색 말과 러시아사회운동(灰色馬與俄國社會運動)>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월보》 제14권11호(1923년 11월)에 이미 발표된 적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태도, 글쓰기가 러시아어에 정통했던 덕분에 이 작품에 관한 러시아 현지의 비평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공상적 사회주의 입장에서 쓴 정전두어의 서문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러시아 주류 비평계의 관점을 흡수한 취치우바이는 《회색 말》의 주인공 조지는 ‘최후의 허무주의자’, 무목적, 무원칙, 무흥미, 무이상의 악귀였지만 러시아 혁명 역사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예술적 진실’이라고 칭송했다.³⁶⁾ 그는 테러리스트 입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회색 말》의 주인공 조지는 뿌띠부르주아 계급 정당인 사회혁명당이 가진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사회혁명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

35) 상하이대학은 공산당과 국민당내 좌익인사들이 공동 후원했으며, 다가올 국가혁명운동에 필요한 기간요원들을 편성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1923년 가을에 개강했으나 정치적 박해로 1925년 6월 4에 문을 닫았다. 픽코 위쯔 저, 심규호 옮김, 《중국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구추백의 영향-》, 서울: 청년사, 1991, 95쪽 참조.

36) 瞿秋白, <灰色馬與俄國社會運動>, 《小說月報》 第14卷11號, 1923.11, 4쪽.

찍부터 자멸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례로 암살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수단에 의지한 점, 지도자 몇 명에 의해서 모든 지시가 하달되며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비민주적 분위기, 당 내부의 비판 정신의 결여, 몰수와 약탈을 통해 암살운동의 비용으로 삼는 것 등이었다. 부정과 부패로 만연한 분위기에 더하여 혁명의 추진세력으로 민중을 도외시한 채 소수의 영웅만으로 혁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nihil리즘 사상을 갖는 테러리스트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산주의 군중 정당은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의지가 굳고 성실한 노장들과 정진하는 청년들의 새로운 인재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뿌터부르주아 정당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했다. 의지가 박약한 조지와 같은 반혁명가를 묘사하고 있음에도 《회색 말》이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이유는 사회혁명당의 진실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문학과 인생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했던 문학연구회의 멤버였던 취치우바이의 《회색 말》 수용의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대중정당의 기반을 갖추지 않고 소수 혁명가의 의지만으로 혁명을 달성하자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은근히 비판한 취치우바이의 관점은 당시 상하이대학에서 함께 마르크스주의자로 활동하고 있던 선옌빙의 서문에서도 이어졌고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우리 중국 현대의 청년들은 최근 들어 각종 거대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벌써 싫증난 것 같은데, 적어도 ‘혁명’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데에는 진저리가 난 것 같다. 그래서 환각적인 미에 빠져들어 도취해 있으며 남들의 조소를 면하기 위해 정신해방이라는 변명을 내세운다. ... 지금 국내의 정치상황이 나날이 반동화하고 사회혁명의 목소리는 이미 가라앉았다. 그래서 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인심이 마비된 때에는 살신성인의 지사가 권총과 폭탄의 위력에 의지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흔들 몇 가지 사건을 저질러야만 어리석은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며 죽어버린 인심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 ... 사회혁명은 반드시 방안과 책략, 조직을 갖춘 민중

을 무기로 해야 한다. 암살주의는 사회혁명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³⁷⁾

이처럼 선옌빙에게 《회색 말》은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살신성인의 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과 책략을 갖춘 민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선옌빙의 이러한 수용은 사실 사빈꼬프가 이 책을 쓴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사빈꼬프는 사회 혁명당의 전략상의 문제에 관한 의문을 제기 하기 위해 이 소설을 쓴 게 아니라 혁명당원들이 부딪힌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었다.³⁸⁾

IV. 아르치바세프의 《사닌》 수용

루쉰은 일찍이 1921년 7월 《소설월보》에 《노동자 세비료프》를 연재할 때 덧붙인 번역가의 말에서 ‘세비료프’가 근대인의 일면을 체현해냈다면 있다면 《사닌》의 주인공 ‘사닌’은 근대인의 또 다른 일면을 체현해내었다고 말했다. 사닌은 세비료프와 마찬가지로 근대인의 허무주의적 색채를 띠면서도 인생의 목적을 오로지 개인의 행복과 기쁨을 얻는데 두었던 ‘아나키(anarchy) 개인주의’ 사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³⁹⁾ 루쉰의 간략한 소개가 있는 3년 뒤, 아르치바세프의 대표작 《사닌》은 1924

37) “至於我們中國現代的青年，近年來似乎已經倦於注意各種巨大的問題，一至少，已經厭聞‘革命’這兩個字，而日惟耽耽以幻美自陶醉，以精神解放自解嘲而已。…方今國內的政象，日益反動，社會革命的呼聲久已沉寂，憂時者或以爲在這人心麻木的時候，需要幾個‘殺身成仁’志士，仗手槍炸彈的威力，轟轟烈烈做幾件事，然後可以發聲振聵，挽既死之人心。…社會革命必須有方案，有策略，以有組織的民衆爲武器；暗殺主義不是社會革命的正當方法。”沈雁冰，〈灰色馬序〉，《鄭振鐸全集》第19卷，石家莊：花山文藝出版社，1998，22쪽.

38) T. G. Masaryk, 앞의 책, 457쪽.

39) <譯了《工人綏惠略夫》之後>，《魯迅譯文集》第1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188쪽.

년 《소설월보》에 정전두어의 번역에 의해 ‘沙寧’이라는 제목으로 1,2장이 실렸으나 이후 한참 중단되다가 1929년에 이르러 다시 연재되었다. 이듬해 1930년 5월 상무인서관에서 단행본이 출간되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해에 또 다른 번역본 2종 -우광지엔(伍光建: 1866~1943)이 번역한 《山甯》(華通書局, 1930.1); 판선(潘訓: 1902~1934)이 번역한 《沙寧》(光華書局, 1930.4)-이 더 출간되었다. 편폭이 수십만 자에 달하는 장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중국번역문학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⁴⁰⁾ 공교롭게도 3종의 《사닌》 번역본은 러시아 원전이 아니라 모두 할크톤(Percy E. Pinkerton)이 영어로 번역하고 캐넌(Gilbert Cannan: 1884~1955)이 서문을 쓴 1914년 영역본 Sanine⁴¹⁾을 저본으로 삼았다. 다만 정전두어의 번역만 경지즈(耿濟之: 1899~1947)와 취치우바이가 러시아 원전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교정을 본 것이었다. 이후 1936년까지 《사닌》은 3종의 번역이 더 출간되어 모두 6종의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러한 수치는 영역본 2종, 일역본 5종, 독역본 3종에 그쳤던 다른 국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1936년 당시 중국은 《사닌》의 번역본을 가장 많이 내놓은 국가였던 것이다.⁴²⁾

정전두어는 1924년 6월 《소설월보》에 《사닌》을 연재하기 한 달 전, 즉 1924년 5월에 <아르치바세프와 《사닌》-《사닌》의 번역 서문>을 써서 필명 ‘시諦(西諦)’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12쪽에 달하는 서문은 그 당시 번역가들이 썼던 일반적인 서문의 분량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다. 이 서문을 쓰기 위해 정전두어는 5종의 참고서적을 활용했는데, 그것을 완벽히 체화하지 못한 채 단순 인용과 짜깁기에 그침으로서 서술이 일관성과 설득력이 떨어졌다.⁴³⁾ “《사닌》의 출간으로 인해 아르치바

40) 胡從經, <沙甯書話>, 《胡從經書話》, 北京: 北京出版社, 1997, 272쪽.

41) London: Martin Secker, 1914년.

42) Mark Gamsa, 앞의 책, 141쪽.

43) 西諦, <阿志巴綏夫與《沙寧》—《沙寧》的譯序>, 《小說月報》第15卷5號, 1924. 5, 11쪽 참조. 그런데 1930년 《사닌》의 단행본이 나올 때 쓴 서문이 활용한 참고문헌은 6종으로 증가했다. 정전두어는 1927년 사망한 작가의 후반 생애에

세프는 세계문단에서 불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⁴⁴⁾는 찬사로 시작한 이 서문은 내용 전개상 대체로 6개 부문, ① 《사닌》이 러시아는 물론 유럽 및 일본에서도 주목 받은 사실, ② 작가의 생애, ③ 작가의 작품세계, ④ 《사닌》의 특징, ⑤ 《사닌》의 줄거리, ⑥ 《사닌》의 예술적 성취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①에서는 예일대학 영문과 교수였던 펠프스(William L. Phelps: 1865~1943)가 쓴 《러시아 소설가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Russian Novelists)》의 8장 <아르치바세프>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 사닌을 ‘도덕적 허무주의자’로 규정짓고 이 덕분에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② 작가의 생애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아르치바세프가 자신의 생애에 관해 쓴 자전적 서술을 2쪽 가량 그대로 인용해 왔다. 이 자전적 서술은 작가가 친구이자 자신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빌라드에게 보낸 편지에 삽입되어 있는데, 정전두어는 핀커톤이 1915년 영어로 번역한 아르치바세프의 소설 모음집 《백만장자(The Millionaire)》의 서문에서 이 편지를 인용해 왔다. 이러한 삽입은 작가의 생애에 대해 어떤 누구도 작가자신보다 더 잘 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정전두어의 생각 때문이었다. 아르치바세프의 유년시절, 좋아했던 미술을 포기하고 문단에 데뷔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자신의 작품 세계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끼, 체호프, 위고, 괴테에게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사상적으로는 막스 슈티르너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③에서는 아르치바세프의 작품세계를 ‘아나키 개인주의’와 ‘염세사상’ 두 가지로 특징지은 후,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된 이유는 작가의 병약함 때문이었다는 펠프스의 관점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여기서 정전두어는 펠프스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과해버렸다. 펠프스는 아르치바세

관한 언급을 추가하기 위해 미르스키(D. S. Mirsky)가 쓴 《러시아 현대 문학(Contemporary Russian literature)》을 추가로 활용했다.

44) “《沙寧》(Sanin)의出版, 使阿志巴綏夫(Michael Artzibashev)在世界文壇上得到了不朽的地位.” 같은 글, 1쪽.

프의 사상은 순전히 개인적 이유에서만 생겨난 것은 아니며 그것은 신러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조류라며 러시아 사회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했다. 기성의 도덕을 부정하는 ‘자아확신의 문학’을 써내는 신진 작가들 가운데 아르치바세프는 가장 뛰어난 작가라는 사실도 첨가했다. 아르치바세프의 작품이 러시아 사회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펠프스의 관점은 아르치바세프 자신의 설명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아르치바세프는 빌라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주장한 개인주의는 ‘신러시아의 새롭고 강하고 용감한 대표들에게 갖든 정신’이며 따라서 ‘사닌’은 1900년대를 대표하는 전형성 갖춘 시대의 영웅임을 분명히 밝혔다.⁴⁵⁾ 정전두어가 작가 개인의 인생역정과 작품세계 간의 필연적인 인과성을 강조하는데 치우쳤던 데에는 《사닌》이 푸르게네프가 《아버지와 아들》에서 형상화한 허무주의자 바자로프처럼 실존 인물을 묘사한 ‘진실의 정신’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 결함을 가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문학은 인생과 사회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5.4 리얼리즘 정신에서 봤을 때, 《사닌》이 실존인물이 아닌

45) 아르치바세프는 《사닌》을 1905년 혁명 이후의 러시아 지식인의 심리와 사상을 반영하는 시대의 초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러시아비평계에서 활발한 논쟁을 일으켰던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의 계보, 즉 1830년대의 ‘페초린’[레르몽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의 주인공], 1840년대의 ‘루딘’[푸르게네프의 《루딘》], 1850년대의 ‘오믈로모프’[곤자로프의 《오믈로모프》], 1860년대의 ‘바자로프’[푸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전형(type)의 반열에 ‘사닌’을 올려놓았다. ‘사닌’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의 전형이라는 작가의 설명에 루쉰은 적극 찬동했다. 페초린은 러시아의 의지는 있으나 지식이 없는 지식인, 루딘은 지식이 있지만 의지가 없는 지식인, 오믈로모프는 1850년대의 무기력한 귀족 지식인, 바자로프는 무력한 이상주의자이자 니힐리스트를 상징한다. 1870년대 이후로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은 러시아 문단에서 한동안 출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3세의 반동정치로 인해 새로운 영웅을 묘사하는 것을 엄금했기 때문에 80년대 작가들은 평범한 주제 하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다가가는 비영웅적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창조하는데 주력했고 90년대로 가면 체념과 회의적 색채를 띤 문학이 급증했다. Otto Boele, *Erotic Nihilism in Late Imperial Russia: The Case of Mikhail Artsybashev's Sani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9, 39-40쪽 참조.

46) 西諦, 앞의 글, 9쪽.

작가가 상상해낸 허구적 인물을 묘사했다는 점은 분명 치명적 결함이었다. 정전두어는 이 결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사년》을 리얼리즘 문학의 범주에 귀속시키기 위해 이 소설의 창작동기가 작가의 진실한 체험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르치바세프는 3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폐결핵, 그리고 19세 때 자살기도로 늘 병약한 삶을 살았고, 이 때문에 인생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급기야 염세적이 되었다. 한편 병약한 삶은 오히려 강건한 니체식 초인(超人)을 갈망하게 만드는 작용도 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의 중심사상 ‘아나키 개인주의’와 작가개인의 특수한 경험과의 연관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주인공 사년이 러시아 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전형이라는 관점을 외면한 결과 정전두어는 ④ 《사년》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전두어는 핀커톤의 영역본에 실린 캐년의 서문에서 한 문장을 가져와 “《사년》은 1905년 혁명 실패 후의 청년들의 개인 사상과 행동을 반영했다”고 짤막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캐년의 서문에서 이 문장이 갖는 맥락적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떼어냄으로써 1905년 혁명 이전인 1903년에 창작된 《사년》이 어떻게 혁명 이후의 좌절한 지식인의 심리를 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우연의 일치(偶然的遇合)’라고만 얼버무렸다.⁴⁷⁾ 사실 캐년의 맥락에서 이 문장은 ‘혁명 실패 후’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혁명기에 출현하는 ‘절망적 정서’에 강조점이 있었다. 캐년의 주장은 이렇했다. 원래 혁명이란 정치적 비전만을 갖고 있을 뿐 인간의 삶에 대한 비전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러시아 지식인들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인간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

47) 이러한 정전두어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는 루쉰과 매우 대조적이다. 루쉰은 시인의 감각은 본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아르치바세프는 누구보다 앞서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을 감지해서 《사년》을 써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魯迅, <譯了《工人綏惠略夫》之後>, 《魯迅譯文集》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8, 189쪽 참조.

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혁명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휩싸여 있던 상황에서 출현한 작품이 《사닌》이었다. 실제로 1905년의 혁명은 개인의 삶을 덜 억압하는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절망이 확산되는 시기에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아니라 기성의 권위, 도덕관습을 철저히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태도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닌》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메시지이다. 《사닌》에서 제시한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인간의 야수성 즉 성욕을 긍정하는 것부터이다. 이러한 캐넌 서문의 전체적 의미를 정전두어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여기서 그가 ‘사닌’의 에로틱 니힐리즘과 개인주의, 그리고 《사닌》에 반영된 1905년 러시아 혁명 전야의 지식인의 곤경과 미래의 대안적 전망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루쉰과 마찬가지로 정전두어 역시 ‘사닌’의 니힐리즘과 개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⁴⁸⁾ 펠프스가 예찬한 ‘사닌’의 특징을 자신의 서문에 전혀 인용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⁴⁹⁾ 그렇다면 주인공 ‘사닌’의 인생관에 동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두어가 이 작품을 번역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전두어는 일체의 관습에 부정하는 솔직한 용기, 자신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는 강자로서의 ‘사닌’에 매력을 느꼈고 이러한 인물형상은 중국인들이 부패하고 낡은 일체의 관습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근대화 사업에서 긍정적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용관점 때문에 정치혁명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부재했던 ‘사닌’, 그리고 외설성이 짙은 《사닌》이 예상 밖에도 192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지식인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번역 이유는 《사닌》은 본질까지 파고드는 사실주의 정신을 갖추고 있어서 중국의 문예계가 직면한 병폐, 즉 일부러 꾸며낸 진

48) Mau-sang Ng, *The Russian Hero in Modern Chinese Fiction*, Hong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1988, 69-70쪽.

49) 루쉰은 “사닌의 의론은 실패한 퇴폐적 강자의 원만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魯迅, 앞의 글, 189쪽.

실하지 못한 작품이 범람하는 병폐를 치료하는 처방책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비록 《사닌》의 주인공 ‘사닌’은 실제 인물이 아닌 허구의 인물이었지만, 등장인물의 묘사에서 억지스럽다거나 진실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며 작품 전체가 사실주의 정신을 견지한 서사이며, 작가 아르치바세프는 작품 내에서 시종일관 객관적인 관점을 취했다고 칭송했다.

실제 번역에 있어 정전두어는 《회색 말》을 번역할 때와는 달리 원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러시아 원전과 대조 검토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러시아 소설을 영역본에 근거해서 번역한 자신의 작업에 대해 부적절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나의 러시아어 정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 이는 《사닌》의 예술상의 장점에 아마도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경지즈 선생과 취치우바이 선생에게 부탁해서 러시아 원문과 나의 번역본을 대조 검토해달라고 했다. 따라서 나의 번역문은 원문과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⁵⁰⁾ 정확성에 대한 번역가의 열망은 풍부한 각주, 참고한 문헌의 목록, 아르치바세프 작품의 영역본 목록을 2쪽에 걸쳐 열거한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V. 결론을 대신하며: 1930년대의 수용

이상에서 살펴본 3명의 니힐리스트 영웅 즉 《노동자 세비료프》의 세비료프, 《회색 말》의 조지, 《사닌》의 사닌은 각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존 윤리도덕과 권위를 강하게 거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그래서 중국의 1920년대 혁명 지식인들은 이들을 짜르의 전제정치를 파괴한 원천 즉 혁명의 동력의 하나로 여겨졌고, 이들에게서 인습과 구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러

50) “我的俄文程度幾等於零, ... 這對於《沙寧》的藝術上的好處, 也許是很有損害的。但我已請了兩位朋友耿濟之先生與瞿秋白先生, 來擔負用俄文原本校改我的譯文的責任。因此, 我的譯文, 想不至與原文相差很遠。” 西諦, 앞의 글, 10쪽.

시아 니힐리스트 영웅이라는 타자 속에서 중국의 혁명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혁명과 혁명가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혁명 지식인 계층 내부에서의 이러한 수용관점과 진지한 태도는 일반대중의 독서계에 효과적으로 전파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독서 시장에서는 원앙호접파를 대표로 하는 대중소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을 유희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니힐리스트 영웅을 묘사한 작품은 혁명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수용되기보다 단지 색다른 오락적 대중소설로 수용되어갔다.⁵¹⁾ 그랬던 탓에 《사닌》의 3종 번역 가운데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번역은 우광지엔의 번역이었다고 한다.⁵²⁾ 우광지엔은 정전두어와 달리 자신이 직접 쓴 서문을 달지 않고 오로지 핀커톤의 영역본에 달린 캐년의 서문만을 충실히 번역했으며, 또 그의 번역 문체는 일반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유려한 문체로 당시에 유명했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독자들이 결의에 찬 투사로서의 정전두어의 해석 보다 성욕을 긍정하는 해방된 근대적 주체로서의 캐년의 해석에 더욱 끌렸음을 시사한다. 일반 독자 대중은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덜어내고 이들 작품을 오락과 유희의 차원에서 향유했던 것이다. 급기야 1930년대 중반에 가면 《회색 말》과 《사닌》은 ‘통속본문학명저총간(通俗本文學名著叢刊)’ 시리즈로 개편되었고,⁵³⁾ 이로써 대중독

51) 루쉰이 번역한 《노동자 세비료프》만은 대중소설로 수용되지 않은 듯하다. 혁명가 세비료프가 민중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는 끔찍한 결말, 루쉰이라는 번역가의 명성, 그리고 ‘딱딱한 번역(硬譯)’ 방식이 낡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 문체 등이 대중적 읽기로 전유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서도 《노동자 세비료프》는 《회색 말》과 《사닌》처럼 통속본으로 개작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魯迅全集》(1938년) 안에 수록되어 독자와 만났다.

52) 우광지엔 번역본의 인기는 베이징 국가도서관의 대출 기록과 1935년 《문예대로(文藝大路)》 제1권2기에 실린 저우러산(周樂山)이 쓴 <사닌을 논함(論山寧)>이라는 글을 통해 확인된다. Mark Gamsa, 앞의 책, 137쪽.

53) 서지사향은 다음과 같다. 路荀詢 原著, 葉樹芳 譯, 通俗本文學名著叢刊 《灰色馬》, 上海: 中學生書局, 1935; 阿志巴綏 原著, 邱壽聲 編述, 通俗本文學名著叢刊 《沙寧》, 上海: 中學生書局, 1934.

자계층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 러시아문학명저를 압축된 내용으로 만나게 되었다.

<References>

1. Ed., Yan, Jiayan, *Theoretical Materials of Chinese Novels in the Twentieth Century: 1917~1927*, Vol.2, Beijing: Beijing Daxue Chubanshe, 1997.
2. Hu, Congjing, *Hu Congjing Shuhua*, Beijing: Beijing Chubanshe, 1997.
3. Kirk A. Denton ed., *Modern Chinese Literary Thought: Writings on Literature, 1893~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4. Lu Xun, *The Complete Collection of Lu Xun's Translations*, Vol.1, Beijing: Renmin Wenxue Chubanshe, 1958.
5. Lu Xun, *The Complete Works of Lu Xun*, Vol.3, Beijing: Renmin Wenxue Chubanshe, 1973.
6. Mao Dun, *The Complete Works of Mao Dun*, Vol.18, Beijing: Renmin Wenxue Chubanshe, 1989.
7. Mark Gamsa, *The Chinese Translation of Russian Literature: Three Studies*, Leiden; Boston: Brill, 2008.
8. Mau-sang Ng, *The Russian Hero in Modern Chinese Fiction*, Hong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1988.
9. Otto Boele, *Erotic Nihilism in Late Imperial Russia: The Case of Mikhail Artsybashev's Sani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9.
10. Paul G. Pickowicz, trans. KyuHo Shim, *Marxist Literary Thought in China: The Influence of Ch'u Ch'iu-pai*, Seoul: Ch'ongnyonsa, 1991.

11. Qin gong, *A History of 20th Century Literature Translated into Chinese: May-fourth period*, Tianjin: Baihua Wenyi Chubanshe, 2009.
12. R. H. Stacy, trans. Hang-jae Lee, *Russian Literary Criticism: A Short History*, Seoul: Hangilsa, 1987.
13. T. G. Masaryk, trans. by Eden and Cedar Paul, *The Spirit of Russia: Studies in History, Literature and Philosophy*, V. Two,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19.
14. Wang, Tongzhao, *The Complete Works of Wang Tongzhao*, Vol.6, Ji'nan: Shandong Renmin Chubanshe, 1984.
15. Zheng, Zhenduo, *The Complete Works of Zheng Zhenduo*, Vol.3; 19, Shijiazhuang: Huashan Wenyi Chubanshe, 1998.

<참고문헌>

1. 嚴家炎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 1917~1927》(第二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2. 胡從經, 《胡從經書話》, 北京: 北京出版社, 1997.
3. Kirk A. Denton ed., *Modern Chinese Literary Thought: Writings on Literature, 1893~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4. 《魯迅譯文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8.
5. 《魯迅全集》 第3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6. 《茅盾全集》 第18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7. Mark Gamsa, *The Chinese Translation of Russian Literature: Three Studies*, Leiden; Boston: Brill, 2008.
8. Mau-sang Ng, *The Russian Hero in Modern Chinese Fiction*, Hong-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1988.

9. Otto Boele, *Erotic Nihilism in Late Imperial Russia: The Case of Mikhail Artsybashev's Sani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9.
10. 픽코위쯔 저, 심규호 옮김, 《중국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구추백의 영향—》, 서울: 청년사, 1991.
11. 秦弓, 《二十世紀中國翻譯文學史: 五四時期卷》,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9.
12. R. H. 스타시 지음, 이항재 옮김, 《러시아문학비평사》, 서울: 한길사, 1987.
13. T. G. Masaryk, trans. by Eden and Cedar Paul, *The Spirit of Russia: Studies in History, Literature and Philosophy*, V. Two,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19.
14. 《王統照文集》 第6卷,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4.
15. 《鄭振鐸全集》 第3卷, 第19卷,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8.

<Abstract>

The importance of Russian Literature in modern China is widely acknowledged. The translation of Russian literature had picked up pace in 1920s,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Russia modernist literature, *Worker Shevyref* and *Sanine* by Mikhail P. Artsybashev, *The Pale Horse* by V. Ropshin, examines their translation and reception context in 1920s. By focusing of Chinese translator, Zheng Zhen—duo, the founding member of Literary Research Association and Lu Xun, the most important Chinese author and translator of the 20th century, and their reception context, it offers to be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acceptance of Russian nihilist revolutionary, The hero of this three

Russia literature, in China.

Key Words : 러시아(Russia), 니힐리스트(Nihilist), 중국(China), 1920년대
(1920s), 번역(Translation), 수용(acceptance), 회색 말(The Pale
Horse), 노동자 셰비료프(Worker Shevyref), 사닌(Sanine),
정전두어(Zheng Zhen-duo), 루쉰(Lu Xun)